

『창세기 2회: 거시적 개관』

1. 거시적 개관

창세기는 시작의 날들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날들로 마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 및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왕을 기다리라는 예언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저자는 시작과 끝을 정교하게 이어놓았습니다.¹⁾

창세기는 단락을 구분할 때 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톨레돏이란 단어로 ‘내력’, ‘계보’, ‘족보’로 번역되고, 총 10번 등장합니다.²⁾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의 에피소드들은 몇 개의 족보들을 사용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들 중 가장 중요한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세대와 노아에서 데라까지의 10세대입니다. 이 두 개의 족보는 창세기 첫 부분의 두 단원을 각각 마무리해줍니다(1-5장, 6-11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창세기 1-5장의 어휘, 주제, 이미지들이 창세기 6-11장의 이야기 속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³⁾ 성경은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이 과거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이를 고려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본문은 선택된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내러티브(11:27-25:11), 야곱 내러티브(25:19-35:29), 야곱 아들들의 내러티브(37-50장)입니다. 이 세 개

1) Gray Edward Schnittjer, *The Torah Story*(Grand Rapids: Zondervan, 2006), 박철현 역, 『토라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53.

시작의 날들(1장)	마지막 날들(49장)
창조와 타락(1-3장)	유다 지파의 왕이 오리라는 약속(49:8-12)
이담/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지고, 생명을 얻었으나 동산에서 추방당함(2:7; 3:24)	야곱/이스라엘이 땅으로 돌아가서 장사됨(50:13)
인간이 동산에서 추방당함(3:24)	이스라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함(46:8)
뱀이 속임수를 써서 반역을 부추김(3:4-5)	사자가 군림하고, 순종을 확고히 함(49:9-10)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술 것(3:15)	유다 지파의 왕이 원수들의 목을 손으로 낚아채고, 지배를 확고히 할 것(49:8)
하나님께서 전세계적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킴(6:17)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세계적 가뭄에서 민족들을 구원하심(41:54)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임(4:8)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함(50:21)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1-2장)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50:19)

2) 2:4 하늘과 땅, 5:1 아담, 6:9 노아, 10:1 노아의 아들들, 11:10 셈, 11:27 데라, 25:12 이스마엘, 25:19 이삭, 36:1 에서, 37:2 야곱(Gray Edward Schnittjer, 『토라 이야기』, 54)

3) ① 땅 위의 물(1:2)-홍수(7-8장), ② 창조/축복(1장)-새로운 시작/축복(9장), ③ 타락/저주(3장)-노아의 술취함/가나안을 향한 저주(9장), ④ 살인/방랑(4장)-탐/홀여집(11장), ⑤ 노아까지 10세대 족보(5장)-데라까지 10세대 족보(11장)

의 내려티브는 속임수라는 주제를 통해 연결됩니다. 속이는 자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라반은 라헬에게 속습니다. 야곱의 열 아들은 야곱을 속입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속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동일한 종류의” 존재들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12:1-3). 이 세 가지 약속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후손에 관한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기다리는 이야기이고, 후손 때문에 시험 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자기 조상들의 땅을 떠났다가 귀환하고, 마침내 애굽에서 정착하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36장에서 야곱은 속임수에 중독된, 자기중심적인 축복과 평안을 갈망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야곱의 모순적인 성품과 행동들은 그를 매우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의 표지가 되도록 해줍니다. 야곱은 모든 인류가 가진 딜레마와 소망을 동시에 대변합니다. 그는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선택된 백성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 아들들의 이야기는 가나안과 애굽에서 펼쳐집니다. 증오와 슬픔, 소외에서 시작해서 재결합과 평안과 용서로 마무리됩니다. 결말에서 요셉은 장자권을 얻고, 유다는 축복권을 얻습니다. 이 축복권 속에 그의 후손 중 한명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⁵⁾

4) Gray Edward Schnittjer, 『토라 이야기』, 56.

5) Gray Edward Schnittjer, 『토라 이야기』, 58.